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출산과정 경험*

김 영 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는 과거로부터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규범, 가부장적 전통, 시댁가문중심의 가족제도의 인식들이 뿌리 깊게 내재되어 '여성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생물학적인 재생산적 능력'을 여성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인정하여 여성은 선천적으로 '모성을 지닌 존재'로서 남편과 가문을 위해 남아출산과 자녀양육, 그리고 가족생활유지의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은 어머니로 인식되어 왔다(김은실, 1996; 박영숙과 이은희, 1997; 이연정, 1994; 조혜정, 1991; 최재석, 1976).

그러나 현대산업화에 따른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 여성 취업률의 증가, 여성의 교육기회 증대, 여성 사회참여 증대, 핵가족화, 가족주기의 변화, 자녀수의 감소, 가사보조기구의 확대에 의한 가사 및 자녀양육에 투자하는 기간의 축소, 여성주의의 영향 등으로 여성이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서의 평등과 개성을 강조하는 민주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변천해오면서(여성특별위원회, 1999; 통계청, 1999; 황지영, 1997), 전통적인 모성적 가치관과 여성주의적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머니들

은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기대되는 유교규범 및 혈연중심 가족제도에 기반을 둔 가부장적 가치의식과 여성주의적인 가치사이에서 심각한 모성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며(염영미, 1998), 이러한 혼란과 갈등은 어머니들의 건강신념과 건강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출산과정과 관련하여 보면 오늘날까지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남아선호 사상과 부부간의 피임에 대한 지식 및 준비부족, 남성 주도적인 성관계 등은 출산기에 있는 여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방매륜, 1983; 유은광, 2000).

이러한 점을 감안해볼 때 임신과 출산은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생물학적 현상만이 아니라 출산사건이 일어나는 문화적 맥락내의 가치와 신념이 '사회'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통합된 현상으로서, 임신과 출산은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내에서 그 양식과 의미가 결정되어지는 사회문화적인 현상인 것이다(김은실, 1996; 유은광, 2000; Khalaf & Callister, 1997; Petchesky, 1980).

더욱이 자녀를 매개로 가족관계와 사회관계가 형성되는 우리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되는 초산시의 경험보다는 자녀를 둘러싼 가족

* 2001년 2월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 논문 요약

** 연세대학교 성폭력상담실 상담원,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강사.
e-mail : kyykyh@hanmail.net

과 사회의 문화적 맥락이 더욱 복잡하게 엉켜져 있는 둘째 혹은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들의 경험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다(구훈모, 1998; 이정혜, 1998; 이선옥, 1997; 조혜정, 1991; Rappaport, 1994; Rowbotham, 1989; Ussher, 1989). 그러므로 경임부들의 효율적인 출산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자리잡은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출산과정동안 어떠한 느낌을 갖으며,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선 되어야 한다.

이에 자유주의적인 여성주의 견해를 갖고 있는 본 연구자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관점에서 그들이 어머니 일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새로이 맞게되는 다음 자녀의 임신·출산·산욕·육아 경험이 어떠한지에 대한 포괄적인 탐색을 통해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출산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출산기 여성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그들의 둘째 혹은 셋째자녀 출산과정동안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라는 연구문제를 가지고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문제는 자연주의적이고 종단적인 접근을 통한 탐색적 서술연구의 방법을 필요로 하며,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둘째 혹은 셋째 자녀 출산과정 경험에 대한 문화적 현상을 서술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을 위하여 심층적인 대화와 참여관찰의 현장연구기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서술하고 분석하여 출산문화에 대한 이해를 이끄는 일상생활기술적 연구방법(ethnographic research method)을 선택하였다.

간호실무가 대상자에게 문화적으로 일치하는 간호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적 맥락 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양식」 또는 문화내의 「일상적인 삶」의 보편성(universality)과 다양성(diversity)에 초점을 두고, 특정지역의 인간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의 경험세계 내로 들어가서 참여하는 현장연구기법을 사용하여 맥락내의 집단이 공유하는 내면적·외면적인 문화적 지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패턴을 발견해 내는 연구방법이 바로 일상생활기술적 연구방법이다(유은광, 1993; Morse & Field, 1995/1997; Spradley, 1980/1996).

즉 인간행동양식의 유형 및 무형의 틀을 포함하는 문화의 전체론적 입장에서 한국의 문화가 배어있는 생활양식이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출산과정 경험에서 그대로 표출되고 반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용주의와 현상학에 영향을 받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과 횡문화 간호 이론의 관점에서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출산과정경험이 설명될 수 있으므로, 이 두 이론적 관점이 본 연구의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지지기반을 마련해 준다.

본 연구는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임부를 정보제공자로 하여 현재 임신에서 출산 후 3개월까지의 출산과정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기간을 출산후 3개월까지로 정한 이유는 산후 6-8주까지의 신체생리적 회복을 의미하는 산욕기는 실제로 어머니가 되는 역할을 획득하는 기간으로 간주하기에는 그 기간이 짧으며(박영숙, 1991), Kitzinger(1976)는 산후 3개월간을 모성역할 전환기간으로 보아 임신 4기로 명명하면서 이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도 임신 4기를 모성역할 전환기간으로 간주하여 정보제공자의 산후 3개월까지 경험을 탐색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정보제공자는 부부형태를 갖추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현재 둘째 자녀 혹은 셋째 자녀를 임신한 여성으로 서울지역에 거주하

〈표 1〉 정보제공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기호	연령	남편연령/형제순위	결혼기간	자녀순위별 성	직업	종교	학력
A	26	33/차남	6년	딸/아들	주부	기독교	대중퇴
B	29	35/삼남	2년	아들/아들	주부	무교	고졸
C	35	38/장남	9년	딸/딸	주부	무교	대졸
D	34	36/차남	5년	아들/딸	도서관사서	기독교	대졸
E	27	28/장남	3년	딸/아들	재택수공업	기독교	대졸
F	29	31/차남	5년	딸/아들	주부	무교	대졸
G	30	28/장남	4년	아들/딸	중학교사	무교	대학원졸
H	35	35/장남	9년	딸/딸	과외교사	무교	대졸
I	39	41/장남	11년	딸/딸/아들	주부	불교	대졸
J	35	37/장남	9년	딸/딸/딸	주부	기독교	고졸

며, 산부인과에 등록하여 산전관리를 받고 있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경임부 10명으로, 질적 연구의 특징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는 진행과정 하에 opportunistic, maximum variation, theoretical sampling방법에 따라 선택되었다(표1 참조).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총 10개월이 소요되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비형식적인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의 현장연구기법이 사용되었다. 면담시 연구자는 민감성을 유지하면서 질문 가이드를 작성하여 광범위한 내용의 서술적 질문으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구조적, 대조적 질문으로 비형식적인 면담을 진행하면서 참여관찰하였으며, 연구자의 사전지식, 선입견, 경험, 가치를 판단중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면담 횟수는 만족선(saturation level)에 이를 때까지 면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각 정보제공자 당 일정한 간격을 두고 최저 2회에서 최고 4회까지의 심층면담을 하였다. 면담과 참여관찰 시간은 깊이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참여하여 한번에 짧게는 1시간에서 최고 5시간까지 소요되었다. 또한 수시 전화면담으로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출산과정 경험의 변화양상을 확인하였으며, 자녀출산 삼칠일 후 축하전화와 함께 산후조리장소의 방문이 가능한 정보제공자에 대해서는 가정이나 산후조리원을 방문하여 면담의 기회를 가졌으며, 영아의 백일을 마지막으로 축하선물을 전달하면서 현장 연구를 종료하였다.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현장을 떠난 즉시 정보제공자와의 면담상황을 회상하며 녹음으로 수집된 모든 면담내용을 필사하였으며, 참여관찰한 현장노트, 분석메모, 흐름도, 일기를 작성하여 이들 자료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2차, 3차, 4차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핵심개념의 공통되는 주제를 유목화하면서 각 주제에 따른 경험의 보편성(universality)과 상이성(diversity)의 패턴을 발견하였으며, 이렇게 유목화된 주제들을 공통 속성에 따라 범주로 추상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추상화된 영역내의 범주와 주제들이 분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발견하려 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현장연구기법을 사용하여 얻은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출산과정 경험은 시기별로 A.임신경험, B.분만경험, C.산

육경험, D.육아경험으로 구분하여, 임신경험에서는 자아성찰, 관계형성, 신체적응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만경험에서는 분만준비, 분만반응, 신생아에 대한 반응의 세 가지 영역으로, 산육경험에서는 산후조리와 수유의 두 가지 영역으로, 육아경험에서는 양육 주제, 지지체계, 양육 태도, 양육 반응의 네 가지 영역으로 추상화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 서술에 있어서는 본 학위논문에서의 연구결과 및 논의가 205면으로 서술된 바, 본 고에서는 연구결과와 요약과 더불어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아성찰적이고 관계형성적이며 신체적응적인 임신경험을 하였다.

자아성찰적 경험은 임신수용, 성 선호, 자리매김의 3개 범주로, 임신수용에서는 복합적인 임신의도를 가지며 임신계획 여부에 따라 몸과 마음으로 임신을 인식하면서 다양한 임신 반응의 과정을 거치면서 임신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 혹은 이중적(ambivalent)으로 임신을 수용하였다. 또한 경임부들은 각기 다른 성 선호 반응을 보였는데, 남아를 선호하는 경임부는 바람, 부담감, 불안초조감, 신에게 의지함, 남편에 대한 서운함, 아들에 대한 양가감정·집착과 오기·기대와 포기를 경험하였고, 여아를 선호하는 경임부는 바람직한 모녀관계를 기대함, 특별한 느낌을 경험하였다. 일부 경임부는 중립적인 성 선호 입장을 보이면서 태아의 성보다는 태아건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경임부들은 자기자신의 성찰과정을 통해 어머니로서 여성으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공통적 경험과 상이한 경험을 하였다. 공통적 경험으로는 성숙되어가는, 가족과 더불어 사는, 모성적 가치를 우선한 '어머니됨'을 경험하였다. 상이한 경험으로는 취업모의 '이중역할 해내기', 퇴직한 전업모의 '감정의 파도타기', 셋째 자녀를 임신한 전업모의 '기죽은 삶'을 경험하였다.

관계형성적 경험은 태아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친정 어머니와의 관계, 시어머니와의 관계의 4개 범주로, 모태아 관계형성 경험에서는 모든 경임부들이 태교가 필요하다고 인지하였으나 태교실천에 있어서는 노력부족형, 적극실천형으로 나누어져 다양한 태교실천을 통해서 모태아 상호작용과 애착관계를 형성하였으며, 태모으로 임신사실을 예측하고 임신유지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반영하며 태아의 성을 예측하였다. 또한 취업모의 경우 모태아 관계 속에서 모성역할을 예측하였다. 부부 관계형성에서는 출산과정동안 부부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성생활에서는 금욕형, 조절형, 대화형의 3개 유형으로 반응하였다. 또한 성 역할 인식에 있어서는 전통적 역할인지형, 공동 역할인지형, 역할인지 변화형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정보제공자의 대부분이 공동 역할인지형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남편의 역할분담 유형은 자발적 참여형, 상황적 참여형, 정서적 지지형, 도구적 역할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친정 어머니와의 관계형성에서는 친정 어머니 삶을 거울삼아 반추함으로써 친정 어머니와 정보제공자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하고 어머니의 희생적인 삶의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고자 하는 경험을 하였다. 고부 관계형성에서는 시댁중심의 가족문화를 경험하면서 눈치형, 갈등형, 동화형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신체적응적 경험에서는 생리적 변화, 외모변화, 태동반응의 3개 범주로, 경임부들은 임신의 생리적 변화에 따른 신체적 불편감을 잘 견디어 내었고, 외모변화를 어머니가 되어가는 당연한 과정으로 인지하는 공통경험을 하면서도 외모변화를 긍정 수용 혹은 부정 수용하는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태동 반응으로는 태동 시마다 태아를 구체적으로 인지하여 모태아 상호교류를 하였고, 어머니됨을 실감하며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분만경험에 있어서,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분만과정을 통하여 분만준비, 분만반응, 신생아에 대한 반응을 경험하였다. 분만준비로는 최선의 분만방법 및 장소 선택을 위한 노력, 신생아 용품 준비, 그리고 입원시기동안 가족 대처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분만 반응으로서 진통시 어머니가 되어가는 자연스런 과정으로 인지하여 마음의 준비로 첫째보다 덜 아프고 참을 만하고 빨리 지나가는 느낌을 경험하였고, 분만직후 해방감, 만족감, 성취감, 용이함, 어머니됨을 실감함, 허무함을 느꼈으며, 신생아에 대한 반응에서는 성에 따른 정서반응을 나타내었다.

산욕경험에 있어서,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출산후 산욕기간동안 산후조리와 수유경험을 하였다. 모든 경산모는 산후조리를 잘 해야한다는 생각에 산후조리 계획을 세우나 산판자, 조리장소, 조리시기의 산후조리환경에 따라 산후조리 실천이 달라졌으며, 일부 정보제공자는 산후조리 결과 산후병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고, 신체상 회복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수유경험에서는 모유수유 성공형과 실패형으로 구분되었고, 수유시 행복감과 어머니됨을 공통적으로 실감하였다.

육아경험에 있어서 어머니들은 윗 자녀 양육경험을 통

해 현모양처형, 가정·사회역할 양립형, 개인가치 추구형으로 구분되는 양육 주체에 대한 어머니상을 갖고 있었다. 또한 가족지지 뿐만 아니라 가족외 지지체계의 도움을 받아 양육부담을 줄이고 있었고, 양육태도에서는 인성교육 치중, 자율적인 분위기,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의 중요성, 부모인생도 중요함, 자녀양육관에 대한 부부견해차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통된 양육반응으로는 모자관계를 통해 어머니됨을 실감, 힘든 경험, 육아 자신감, 혼란스러움, 부부관계 반추함, 자녀간의 경쟁의식 염려함의 반응을 나타내었다.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출산과정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남아선호, 대 잇기, 여성주의, 성역할 관념, 기혼여성의 취업욕구 증가와 취업모 증가의 사회현상, 의료자원, 사주팔자, 완벽한 가정상, 여성 미모에 대한 사회적 기대 등으로 우리 사회의 문화가치와 규범들이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기대와 문화적 규범들이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출산과정을 통한 여성의 삶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1. 자리매김 : 모성성과 여성성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출산과정 경험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체성은 '가족과는 분리될 수 없는 어머니로서의 삶'이 묘사되고 있으며, 자녀출산이후 어머니들은 '자녀를 둔 어머니 자신의 이름'보다는 '아기엄마'나 '누구의 어머니'로 불려지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어머니됨'은 여성들의 자아정체성에 깊은 영향을 주고 그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킨다(이경혜, 1998; Ussher, 1989)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의 사회문화는 가부장제가 유지되어온 역사 속에서 남녀의 생물학적 성 차이를 선천적이며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오면서 남성중심주의와 남존여비의 성 차별을 자연적 질서로 인정해 오면서, 여성의 삶에서 가정이란 운명적인 삶의 터전으로 묘사되어 왔다(서병숙, 1993; 조혜정, 1991).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산 영역과 가정이 엄격히 구분되는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에 따라 가족의 구조도 전근대적인 부계중심적 대가족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됨에 따라 본 연구의 정보제공자 10명중 9명이 핵가족형태로 대부분 우애적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부부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시장경제의 발

달과 핵가족이 대두되면서 사회가 개인의 능력에 따른 많은 직업인을 필요로 하게됨에 따라 여성이 대거 직업 전선에 진출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족의 공동체적 삶의 형태와 기능은 가정의 핵심인물인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하여 축소되어 온 것이다. 그러므로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가족을 강화하려는 입장에서 가족의 공동체적 본질을 새롭게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출산과정동안 모든 정보제공자들이 임신기간동안 첫 자녀 임신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가족 내에서의 자기 자신을 새로이 발견하고 있다. 즉 출산과정에 있는 어머니들은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가족과 더불어 사는 삶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자신의 개인적 가치보다는 모성적 가치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 가족 내에서의 경임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새로이 자리매김하면서 가족과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어머니됨을 실감하고 있었다.

또한 경임부들은 출산과정동안 자신을 중심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를 갖음으로서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딸로서의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특히 출산이라는 자체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는 시기가 되므로 새로 태어나는 자녀를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가 주는 의미, 즉 출산을 통해 자녀라는 가정의 버팀목을 더욱 견고히 세움에 있어서 “자녀는 부부사이를 연결하는 생명줄이 되고, 어머니에게 힘이 되고 보상을 주는 원동력”이라는 의미부여를 통해서 정보제공자 자신은 ‘자녀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어머니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인생의 일부분이 되는 어머니됨의 과정 속에 새로이 태어날 자녀에 대한 모성역할을 예측하면서 어머니-자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둘째 혹은 셋째 자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태교를 실천하며, 출산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가족을 이루게 되는데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자녀가 하는 것이다. 부부만으로는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할 수가 없다. 자녀를 통하여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만들 때만이 가정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 근거지가 되고 사랑과 안식을 가져다 준다. 이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만이 영원하고도, 굴곡없는 애정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김재은, 1993). 따라서 현대에 와서 자녀는 부부에게 감정적 유대를 강화시켜 가정을 지탱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다. 결국 자녀는 부부를 묶어주는 생명줄이며, 가정의 버팀목이며, 가정생활 지킴이가 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를 출산하는 출산과정동안 어머니들은 여성본연의 기능, 즉 내적 공간에 직면하여 자기 자신의 자아를 성찰하는 시기가 되며, 출산 경험 자체가 모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성숙으로 도약하게 되는 중요한 발전적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적 갈림길에서 어머니들은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자기찾기’를 경험하게 한다. 신경아(1999)에 의하면 1990년대 어머니들에게서 나타난 의식상의 두드러진 변화는 ‘자기찾기’로 어머니들의 자기찾기 과정에서 의식상의 갈등과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여성은 태어나면서 장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양육됨과 동시에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에 일반적인 가치나 태도, 행동 등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여성에 대해서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스포츠에서도 뛰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장려한다. 이러한 가운데 사춘기와 청년기를 남성과 동일한 자기실현에 초점을 맞추어 성장해온 여성이 출산을 경계로 돌연히 그 때까지 체현하지 못했던 「어머니됨과 자녀양육」이라는 이질적인 세계에 직면하게 되면, 자아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 ‘임신·출산·자녀양육’이라는 사건으로 인하여 여성은 어머니로서 변신하여 자신이 무화(無化)됨으로서 지금까지의 자신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강한 불안에 빠져들기도 한다(이경혜, 1998 ; Ussher, 1989). 이러한 불안은 비단 첫 자녀 출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으며 둘째 혹은 셋째 자녀를 낳으면서 더욱 복잡해진 가족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여성 ‘나 자신이라는 사실’ 즉 개체로서의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사이에서 갈등한다. 위로 두 딸을 둔 경임부의 경우 맏며느리 입장에서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집착과 오기로 셋째 자녀를 출산한 한 어머니는 출산 후 아들을 낳았다는 기쁨은 일순간이었고 산욕기간동안 찾아온 허탈감과 함께 “과거에 건강했던 자신의 정신세계를 되찾고 싶다”는 생각에 여성 자신으로서의 자아정체성과 어머니로서의 모성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여성 중심에 어머니라는 입지를 굳건히 세우기 위한 작업으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든지, 본 연구자와 면담을 하는 동안도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3-4시간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더 해가면서, 자신 속에 차지하고 있는 어머니됨을 스스로

가 찾아가고 있음을 연구자는 느낄 수 있었다. 이 어머니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아정체성'을 삼각형의 모형으로 설명하였는데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자기 자신, 남편, 자녀들로 설정해 놓고 이 삼각형을 그렸을 때 정삼각형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각각 1/3씩의 비중을 두어 살아갈 수 있는 '여성 자신으로서의 삶, 어머니로서의 삶, 그리고 아내로서의 삶의 조화'를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세 축을 놓고 보면 현대의 가족은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에 치중할 뿐 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개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중을 두고자 함을 말해 주고 있다. 이렇듯 '어머니이기 이전에 여성 개인으로서의 삶'을 중시하는 연구 결과들이 출산과정 전체 맥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양육주체에 있어서 기대하는 어머니상의 표현에서 전통적인 현모양처형의 어머니보다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하는 능력있는 어머니이기를 원하고 있거나 극히 일부이기는 했지만 가정생활보다는 직장생활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개인가치 추구형의 어머니상을 갖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어머니상은 모두 어머니로서 개인 자신의 성취기대, 자기발전 욕구와 같은 자아실현욕구를 어머니역할과 같은 비중으로 두고자 했다. 또한 정보제공자 자신을 자리매김함에 있어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해 임신기간 내내 전문 자격취득을 위한 1년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퇴직한 전업모가 재취업을 위해서 임신기간동안 직장 interview을 하거나 태교실천에 있어서도 경임부가 원할 때 자신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먹고 싶은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한다거나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등 모체 중심적인 태교실천행위 등에서 나타나는 대로 어머니 자신으로서의 삶도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그 동안 연구해왔던 출산기 여성의 어머니됨에 관한 선행연구(김영희, 1998; Kim Young Hee & Yoo Eun Kwang, 2000)들을 통해서 어머니됨의 개념속성을 자연성, 책임성, 준비성, 제어성, 애착성, 성숙, 자아실현이라는 어머니됨의 개념의미를 밝힌바 있는데,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어머니됨의 의미속성에 '여성중심성(women centeredness)'이라는 개념이 첨가됨을 발견하여 어머니됨의 의미속성을 여덟 가지 개념으로 발전(develop)시켰다.

2. 어머니 역할

전통적으로 어머니들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여성의 모성실현을 여성 삶의 궁극적 실현이라고 인식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보제공자들은 어머니가 되어가는 많은 변화 속에서 출산에 따른 자녀 양육기간을 통하여 행복감을 경험하기보다는 부담과 갈등을 경험하며 어머니 역할의 어려움을 첫째 자녀 육아경험에서 실감하고 있었다. 또한 둘째 혹은 셋째 자녀의 출산으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가족구조와 기능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으로써 어머니의 역할이 가중됨을 느끼고 있었다. 더욱이 출산이라는 과정 자체가 여성에게 많은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시키는 생활사건이 되므로 이러한 출산에 따른 생리적인 변화와 어머니역할에 대한 부담으로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출산과정의 경험은 첫 자녀 출산과정에서의 태어날 자녀를 기다리고 즐겁고 활기차고 행복해하는 설레임과 만족감(손승아, 2000)보다는 자녀 출산후 신생아를 돌보느라 부족한 수면으로 힘들어 하며,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 것일까?'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부담감, 그리고 가사 일 분담에 직면하여 직장 일 만으로도 지친 남편에게 육아 및 가사 일에 대해 역할분담을 한다는 것에 대한 양가감정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녀양육관에 대한 부부의 견해 차이로 갈등을 초래하고 때로는 부부관계를 방해하는 신생아의 존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힘겨움'을 경험하였다.

전업모의 경우에는 아기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들은 어머니에게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는 생각으로 의욕이 저하되고 무기력해지며 우울하고 짜증이 나며, 처리하고 처리해도 끝이 없는 가사 일과 자녀양육은 어머니들을 지치게 만든다. 취업모의 경우에도 기존의 가정에서의 어머니역할에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까지 양립해야 하는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출산 후 자녀를 돌볼 인적 자원이 없을 경우에는 직장생활을 그만두어야 했으며, 대리양육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를 보살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拂해야 한다거나, 특히 시어머니께서 자녀를 돌봐주시는 경우에는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죄인처럼 살아야하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어머니 자신이 좋은 어머니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직장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와도 계속적으로 육아와 가사 일로 힘겨운 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양립에 대한 양가감정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출산시기를 전후하여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건강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Judith(장휘숙, 1996에 인용됨)는 어머니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기, 어머니 역할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그리고 집안청소와 같이 우선순위에 떨어지는 역할들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의 수행표준을 조절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즉, 어머니 역할의 부담과 갈등으로 인한 힘겨움을 상쇄할 수 있는 여러 전략 중 어머니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머니 개인 이외의 전략을 생각해보면 자녀양육과 가사 일에 대한 힘겨움을 부부 공동육아 및 가사 일 참여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분담, 가능한 지지체계의 활용방안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힘든 어머니 역할을 통해서 어머니로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정보제공자들은 자신의 의식 속에 비춰지는 친정 어머니의 삶의 모습에서 친정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친정 어머니를 더욱 이해하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며, 친정 어머니의 삶 속에서 자녀에게 희생하는 삶에 대해서는 따르고 싶지 않은 친정 어머니의 삶을 거부하고 싶은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첫 자녀의 육아경험이 처음으로 해보는 어머니 역할에 대한 미숙함으로 지치고 힘든 경험이 계속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도 자녀양육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되고, 어머니역할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되고, 이러한 육아경험을 통하여 성숙하고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어머니됨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어머니 되어가는 과정인 모성전환에 초점을 두고 초임부의 임신경험을 연구한 이은희(1995)의 연구결과에서도 계획된 임신을 하여 모아에착관계를 유지하면서 임신기간동안의 모성역할 준비를 통해 어머니됨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한 정보제공자의 경우는 임신과정동안 어머니됨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동안 형성된 여성정체성에 따라서 모성정체성 수용에 갈등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의 정보제공자중 한 명에 해당되는 정도로 드물기는 했지만 이 정보제공자의 경우는 취업모로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에게 자녀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며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활력소가 되어 힘든 자녀양육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두 자녀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은 인생의 일부 과정일 뿐이며, 현재의 자신의 생활이 마치 모성역할쪽으로 굴러가는 공 같다고 표현하면서, 연년생의 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간의 육아휴직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어머니됨은 역행할 수도 없고 방향을 이탈할 수도 없다는 점과 자녀양육의 힘겨움을 그냥 앓을 예측할 수 없는 '공'에 비유하면서 앞으로 힘들어질 어머니 역할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의 길을 선택하였다.

어머니역할이 준비되지 않은 취업모의 경우처럼 모든 취업모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자녀를 포함한 가정생활이 걸림돌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정보제공자중 취업모는 4명이었는데, 위의 취업모를 제외한 3명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하기를 원하면서 이러한 다중역할을 통해서 모성으로서와 직장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조화롭게 형성해 나가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과정 중에 역할부담과 역할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취업모들이 취업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물론 경제력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지만 그보다 취업이 어머니 역할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는데, 예를 들면 퇴직한 전업모들의 반응으로 "직장을 그만 둔 1-2달은 좋았으나 그 이후부터 무기력해지고 회의가 생기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물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에서 보면 퇴직후의 생활에서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첫 자녀 출산 후 자녀를 돌봐줄 지지체계 결여로 직장생활을 일시적으로 그만두었다가 재택 근무로 재취업을 하여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취업모의 경우에는 퇴직 후 자녀만 키웠을 때보다 현재의 생활이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Birnbaum(장휘숙, 1996에 인용됨)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전업모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정체성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참여나 도전을 회피하였으나 취업모들은 다중 역할요구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자존감과 자기만족감을 지니고 있어서 자주 시간부족을 느끼고 자녀의 존재에 대해서 때때로 짜증스러워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직업이 어머니 자신을 더 좋은 어머니로 만든다고 생각하였고, Baruch, Barnett & Rivers(장휘숙, 1996에 인용됨)의 연구에서도 취업모들은 전업모들보다 더 큰 숙달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 한다.

이에서 볼 때 '어머니됨'이란 '여성 자신이 어머니 될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며, 직업인으로서의 개인적 자아정체성을 추구하는 어머니들에게 있어서는 여성은 곧 어머니라는 사회적 통념이 여성 개인의 자아실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으며, 자녀의 의식주와 정서를 보살피고 교육시킬 수 있는 어머니 역할은 자녀를 낳은 어머니라는 생물학적 조건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모성본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로서 여성에게 필요한 육체적 능력과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기술을 훈련받고 적절한 자녀양육관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성들이 자녀양육을 위한 어머니 역할을 배우고 익히듯이 남성들도 자녀의 의식주와 정서를 보살피고 교육시킬 수 있는 자녀양육을 위한 아버지 역할을 준비하고 훈련하여야 공동 육아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3. 출산문화

1) 남아선호와 대 잇기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는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그 결과로서 자녀를 낳는다는 사실을 당연히 여기는 사회화된 문화적 신념을 갖고 살아왔다(김용숙, 1990; 김진명, 1994; 최재석, 1976). 하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젊은 부부들은 DINK족(double income, no kids)이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경제력 및 부부중심의 가정생활을 원하고 있으며, 여성 스스로가 자녀출산의 결정권을 선택하고 있다(정현숙 등, 1998). 본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 스스로가 자녀출산을 위한 임신의도를 가질 때 첫 째 자녀 임신 시에는 별 생각없이 '결혼한 여성이면 당연히 어머니가 된다'는 사회화된 가치규범에 따라 본능적으로 사회적인 책임완수 입장에서 비주체적으로 임신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터득한 둘째 혹은 셋째 자녀를 임신하고자 하는 의도는 대부분의 경임부가 '자녀가 가정에 주는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임신의도를 갖고 있다. 또한 임신·출산과 같은 가족 내 중요한 생활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가장인 남편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경우보다는 부부가 상의하여 결정하거나 아내가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유형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위치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의 모든 여성이 가정 내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출산과정 경험 속에서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이

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규범이 아들이 없는 어머니들을 심리적으로 억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적 차별의 문화 속에서 사회화의 경험을 시작한다. 특히 우리 나라처럼 남아선호도가 높은 문화권에서는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남아중심의 태교라는 고정관념에 기초한 사회화에 노출되어 평생을 두고 성별 사회화의 과정을 밟는 셈이다. 게다가,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서, 교과내용, 학생과 관계하는 교사의 태도와 행위, 학교의 제도적 관행 등 모든 사회문화적 환경이 또한 차별을 진행시킨다. 고등교육에서도 전공 선택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교육과정은 물론 일상적인 제도와 관행에서 마찬가지로의 성별 사회화가 지속된다. 그 결과 남성은 '남성다움'을, 여성은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이른바 성에 걸맞은 행동반응을 보이며 살게된다. 그러나 남녀 모두가 조금도 거부감없이 그것을 진리 내지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남녀의 성 역할은 따로 있고, 이러한 구분이 마땅하다고 인식하는 사회적인 시계(social clock)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비단 남녀의 자아 속에 성 정체성으로 이미 자리잡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성정체성이나 성역할의 구분은 제도적으로 사회속에 형성되어있고, 문화적으로 가치와 규범으로 정당화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회문화적 지지를 얻고 있다(이은숙과 장지연, 1999; 임정빈과 정혜정, 1998)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성이 우월하게 인정받는 사회문화적 가치체계에서는 이왕이면 아들로 태어나 인정받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아들이 없는 어머니일수록 생물학적 여성으로서의 책임완수 측면에서 어머니의 억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위로 딸을 둔 어머니들은 아들에 대한 집착과 오기로 정신병자가 된 느낌으로 임신전기간동안 감옥같은 생활을 하며,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녀출산을 반복할 것인지에 대해 갈등하며, 일단 임신을 하게되면 제일의 관심사가 태아가 아들인지 딸인지 출산 전에 미리 알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만일 성 감별시 아들이 아니면 구박당어리로 태어나느니 차라리 귀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쪽으로 임신한 여성 스스로 뿐 만 아니라 주위 가족들이 너무나도 쉽게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어 우리 나라의 경우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1976년 39%에서 1991년 54%, 1994년 49%로 1회 이상의 낙태수술을 경험한 어머니들이 절반의 수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박인화와 황나미, 1993).

이처럼 남아선호와 대 잇기의 출산문화는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가 변하여 왔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우리 나라의 가족문화에 자리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와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도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한 맏며느리는 시어머니께 항상 기죽은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되며 떳떳하지 못한 편치 않은 삶을 살게 되며, 일부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고부간의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게 됨을 딸딸이 엄마, 딸 셋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딸을 둔 어머니들의 심리적 고충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대접받는 사회, 즉 우리 사회가 남녀 평등사회로 바뀌어 갈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부장적 남녀차별로부터 남녀평등 시민의식 고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문화활동의 활성화, 여성복지 증진, 여성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의 정부차원에서의 남녀평등 여성정책지원이 꾸준히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 위원회를 두어 각종 여성정책을 구축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전망된다.

2) 성역할 고정관념

본 연구의 정보제공자들은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었기 때문에 첫째 혹은 둘째 자녀 양육경험을 통해서 성역할 인식에 대해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즉 여성이 모성으로서의 생물학적 천부적 역할은 자녀 출산, 자녀 양육, 자녀 사회화의 담당자라는 문화적 역할을 들 수 있다(여성한국사회연구원편, 1996).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가 자녀출산, 자녀양육, 자녀의 사회화 모두 여성의 역할로 규정하여 가족이 개인을 사회화시키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짝치게 하였으며,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현대의 우리 사회와 가족문화 안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가치신념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사회문화 속에서 성장한 현대인들 역시 성역할 인식에 있어서 사회화되어 온 그대로 전통적으로 남녀가 구분된 성역할로 인지한 상태로 결혼하여 생활하다가 자녀출산이후 처음으로 어머니가 된 여성들은 준비와 훈련부족으로 익숙치 않은 자녀양육 및 가사 일이 부담스럽게 느끼기 시작하면서 고정화된 성역할 인식이 바뀌어 자녀양육 및 가사 일은 부부 공동의 몫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보제공자들은 가정에서 남편들의 자발적인 역할분담을 원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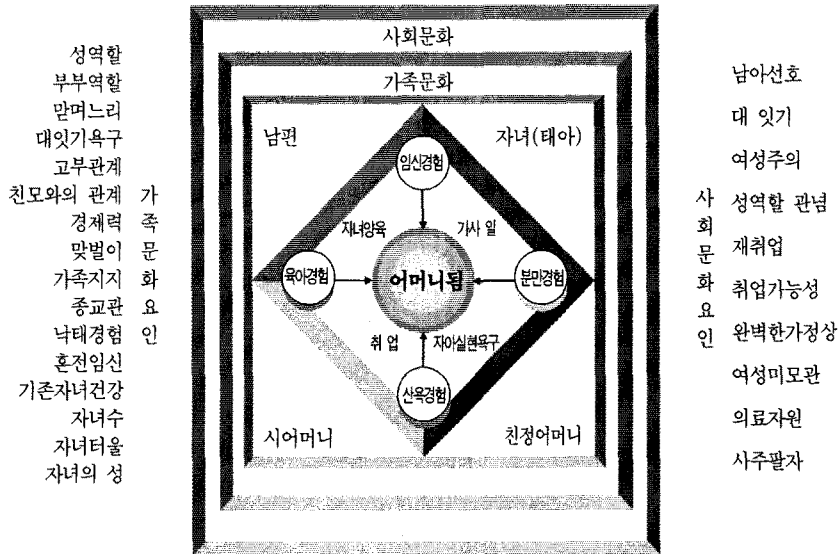
있는데 대해 솔선해서 참여하는 남편, 힘들어하는 아내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남편,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신념으로 남성으로서 가족 부양의 도구적인 성역할로 인지하는 남편으로 유형화되었다.

이러한 부부의 성역할 인식 및 역할 분담은 부부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출산과정동안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중 하나가 부부관계이다. 정보제공자들은 출산이라는 생활사건을 맞은 가족과의 사이에서 관계형성적 자아를 발달시키게 되는데(이순혜, 1999), 이 중 정보제공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는 가족이 바로 남편이 된다. 다시 말해서 출산과정동안 정보제공자 자신을 지지해줄 남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를 갖는데, 출산이라는 가족 사건을 놓고 부부관계의 새로움을 발견하는 정보제공자들은 임신을 기점으로 하여 부부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우애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부간에 상호이해하고 협력하고 존중하며 자녀양육 및 가사 일에도 상황적으로나 자발적으로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바람직한 부부상을 정립해 가고 있다. 반면에 갈등부부의 경우에는 잦은 부부싸움으로 남편과의 부딪침이 너무나 힘들지만 자신을 가다듬고 이겨나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부부갈등을 극복하면서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부부간의 감정조절과 인간적 융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출산과정은 부부에게 있어서 부부관계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전환의 시점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남편의 가족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서 힘은 어머니 역할을 긍정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며, 남편의 가사 및 자녀양육의 참여를 통해서 어머니 역할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4. 종합 : 어머니됨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출산과정 경험은 임신·분만·산욕·육아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문화와 가족문화 속에서 자신을 자아성찰하는 가운데 가족과의 관계짓기를 통하여 어머니로서의 자아정체성이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 되고 있으며, 동시에 가족과 더불어 사는 어머니 내면에는 어머니이기 이전에 자아실현욕구를 가진 여성 개인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보제공자들은 출



<그림 1>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출산과정 경험을 통한 어머니됨 모형

산 전 과정동안 끊임없이 '자기찾기(self discovery)'를 통해서 가사 일, 자녀양육, 취업, 그리고 자아실현욕구를 가진 어머니로서와 여성으로서의 양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어머니됨'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러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출산과정 경험을 통한 어머니됨 모형을 <그림 1>로 종합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둘째 혹은 셋째 자녀 출산과정동안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규범들과 가족문화가 일상생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관점에서 그들의 자녀양육·임신·출산·산욕 경험들을 파악하고 해석하고 서술하여 출산문화의 이해를 이끌 수 있는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 방법(ethnographic research method)에 의하여 귀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출산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출산 및 자녀양육기 여성들의 효율적인 간호중재 방안 모색에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둘째 혹은 셋째 자녀를 임신한 10명의 경임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수집하기 위하여 임신기간부터 산후 3개월에 이르기까지 종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일상생활기술적 대화

(ethnographic interview),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전화면담 등의 현장연구기법을 사용하여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출산과정동안 그들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의 경험세계를 상세하게 알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은 출산과정 경험을 임신경험·분만경험·산욕경험·육아경험의 각 시기별로 중요한 개념들의 유목화과정과 추상화과정을 거쳐 각 시기의 영역별 범주의 유목화된 주제에 따른 경험의 보편성(universality)과 상이성(diversity)의 패턴을 발견하여 다음과 같은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출산문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1. 우리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 자리잡은 대 잇기, 남아 선호, 성역할 관념, 사주팔자, 사회가 요구하는 완벽한 가정상, 여성 미모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문화적 가치규범들이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의식과 무의식 세계를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기대와 문화적 규범들에 의해서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출산과정을 통한 그들의 삶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2. 여성주의(feminism),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높아진 취업욕구와 취업 가능성, 의료자원, 분유광고와 같은 사회 현상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출산과정동안의 여성은 가족문화 맥락 내에 자리잡고 있는 출산, 자녀의 성, 자녀 수, 자녀터울, 기존자녀 건강문제, 경제력, 맞벌이 가족의 출현, 가족지지체

계, 친모와의 관계, 고부 관계, 성역할, 부부역할, 만
 머느리, 대 잇기 육구, 종교관, 혼전 임신, 낙태 경험
 등의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태
 아를 포함한 자녀·남편·친정 어머니·시아머니와의
 관계짓기 속에서 가족과는 분리할 수 없는, 가족과
 더불어 사는 자신을 자리매김한다. 따라서 어머니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가족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그들의 임신경험, 분만경험, 산
 육경험, 육아경험이 이루어지는 가족 확장기 동안은
 가사 일과 자녀양육에 관련하여 자신을 자리매김하면
 서 '어머니됨'을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취
 업이나 사회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여성 개인으로서의
 자기성취 기대와 자기발전 욕구를 인정받고자 하는
 '어머니됨'을 발견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와 여성 개
 인으로서 동전 양면과 같은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여성은 출산 및 자녀양육기 동안 어머니됨의 자기 회
 생적인 속성이 훨씬 강화되어 어머니됨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출산 및 자녀양
 육기 동안 어머니와 여성으로서의 균형과 조화는 여
 성 건강과 여성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5. 이처럼 여성의 생의 주기에서 임신·출산·자녀양육
 을 통하여 연계되는 어머니됨은 여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며, 이러한 임신·출산·
 자녀양육의 경험에 따라 여성에게 공통(universal)
 되면서도 개인에게 독특한(diverse) 의미를 갖게 하
 는 어머니로서와 여성으로서의 정체감(어머니됨)이
 확립된다. 특히 출산과정 중 임신 경험은 제일 길면
 서도 여성에게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험들로서
 임신과정동안 수용하고 있는 어머니됨에 따라서 분
 만, 산육, 육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실무자들은 어머니됨 수용·적응·준비를
 위한 임부관리 측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접근해
 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6. 연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동안 건강관리 전문
 가들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던 임신·출산·
 산육 그 자체로서의 생리적인 경험은 사회문화적 맥
 락 내에 있는 출산기 여성 경험의 극히 일부에 속하
 며, 이 시기동안의 경험의 주를 이루는 심리·사회문
 화적 경험들은 여성건강을 좌우하는 주요인자임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건강관리 전문가들의 관점을 '출산

과정 중에 있는 임신부'라는 생의학적 관점에서 임
 신·분만·산육기에 있는 여성이라는 생문화적 접근
 (biocultural approach)을 포함한 통합적인 관점
 (integrative perspectives)으로 방향전환하여 출산
 의 주체가 되는 여성의 관점에서 출산과정에 있는 모
 성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구성해 나감으로서 여성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삶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을
 갖고, 출산과정을 경험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전
 인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통합적인 간호접근을 통해
 여성건강증진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혼모 (1998). 가부장제 결혼과 가족. 한국여성학연구
 회 편, 여성학이해(pp. 71-82). 서울 : 경문사.
- 김영희 (1998). 간호이론개발을 위한 개념분석 : 어머
 니됨. 여성건강간호학회지, 4(2), 245-257.
- 김용숙 (1990). 한국 여성사. 서울 : 민음사
- 김은실 (1996). 출산문화와 여성. 한국여성학, 12(2),
 119-153.
- 김재은 (1993). 가정밖의 여성. 서울 : 백록출판사.
- 김진명 (1994). 전통적 담론과 여성억압. 한국문화인류
 학회, 한국문화인류학, 26, 119-156.
- 박영숙 (1991). 산육기 초산모의 모성전환과정. 서울대
 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영숙, 이은희 (1997). 재생산적 신체 : 임신과 출산의
 현실. 여성과 사회, 제8호, 78-93.
- 박인화, 황나미 (1993). 모자보건의 정책과제와 발전방
 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방매륜 (1983). 출산에 관한 한국의 전통문화가 모유수
 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과 박사학위논문.
- 서병숙 (1993). 결혼과 가정. 서울 : 학문사.
- 손승아 (2000). 첫 어머니됨 체험. 서울여자 대학교 대
 학원 아동학과 박사학위논문.
- 신경아 (1999). 1990년대의 모성의 변화. 심영희 정진
 성, 윤정로(공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389-413).
 서울 : 나남출판사.
- 여성특별위원회 (1999). 여성백서.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6). 여성과 한국사회.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 염영미 (1998). 여성 정체성 변화에 대한 연구. 서강대

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유은광 (1993). 여성건강을 위한 건강증진행위 : 산후조리의 의미분석. 간호학탐구, 2(2), 37-65.

유은광 (2000). 여성의 건강과 산후조리. 2000 산후조리 전문교육 프로그램. 한양대학교 간호발 전연구소 여성건강 연구부.

이경혜 (1998). 중년기혼여성의 역할적응과 자아정체감 형성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선옥 (1997). 신현모양처의 이데올로기 부상. 여성과 사회, 8, 211-220.

이순혜 (1999). 출산 후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연정 (1994). 모성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은죽·장지연 (1999). 여성·가족·사회. 서울 : 세영사.

이은희 (1995). 초산 부부의 임신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임정빈, 정혜정 (1998). 성역할과 여성. 서울 : 학지사.

장휘숙 (1996). 여성 심리학 : 여성과 성. 서울 : 박영사

장현숙, 최연실, 유계숙 (1998). 결혼학개론. 서울 : 상명대학교 출판부.

조혜정 (1991).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 문학과 지성사.

최재석 (1976).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 개문사.

통계청 (1999). 경제활동인구연보.

황지영 (1997). 사회변동에 따른 한국여성의 취업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Khalaf, I., & Callister, L. C. (1997). Cultural meaning of childbirth : Muslim women living in Jordan. Journal of Holistic Nursing, 15(4), 373-388.

Kim Young Hee & Yoo Eun Kwang (2000). Concept analysis of mother to be in Korea.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eleventh International Congress of Women's Health.

San Francisco, California : University of San Francisco.

Kitzinger, S. (1976). Effects of induction on the mother-baby relationship. The Practitioner, 217(9), 263-269.

Morse, J. M., & Field, P. A. (1997). 질적간호연구방법(신경림 역). 이화여대 출판부. (1995에 원저출판)

Petchesky, R. P. (1980). Reproductive Freedom : Beyond 'A Woman's Right to Choose. Sign, 5(4), 677.

Rappaport J. (1994). Analytic work concerning motherhood. Psychoanalytic Review, 81(4), 695-715.

Rowbotham, S. (1989). To Be or Not To Be : the Dilemmas of Mothering. Feministic Review, 31, spring, 82.

Spradley, J. P. (1979). Ethnographic interviews. Toronto, Canada : Holt, Reinhart & Winston.

Ussher, J. (1989). The psychology of the female body. London : Routledge.

-Abstract-

Key concept : Self-discovery, Mother-to-be, Childbearing culture

An Ethnographic Research Study on Childbearing Process of Mother with Children in Korea.

Kim, Young Hee*

The childbearing process is a sociocultural phenomenon of a woman who gives birth to a child as well as a biological phenomenon. The purpose of this ethnographic research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childbearing process of mothers with children from pregnancy to the 3 months postpartum in Korea and to understand

* R.N., Ph. D., Counselor at Sexual Violence Institute in Yonsei Univ., Nursing Instructor in Hanyang Univ.

deeply the perspectives of childbearing women reflected on Korean sociocultural values. A convenient sample of 10 childbearing women were observed from January to October 2000 through field work in Seoul, Korea.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under ongoing proc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The mothers with children experienced self-reflection, family relation, and physical adaptation during pregnancy. In self-reflection, all mothers experienced universality and diversity in their self-discovering process. The universal experiences were maturation, life with family and priority on maternal value between being a mother and a woman. The diverse experiences were taking a dual role of working mother, emotional drift of a resigned mother, and disheartened life of a mother who has two daughters.

In family relation, the foundation of the new marital relationship were attained during childbearing process and sexual life were changed for the benefit of a healthy mother and a healthy baby. All mothers established friendly relations with their mothers, but established friendly or conflicting or constraining relations with their mother-in-laws due to husband based family culture.

In physical adaptation, the informants endured well the physical discomfort and recognized general appearance change. Also maternal-fetal interaction occurred and mothers realistically felt motherhood and accepted themselves as mother-to-be.

The mothers prepared for the best delivery, look for a safe childbirth center, newborn goods, endorsed family coping during hospitalization and responded labor pain to make it more endurable, less painful, fast passed owing to labor recognition of the natural process to be a mother. After childbirth, they felt emancipation,

satisfaction, accomplishment, more easiness, actually feeling as mother-to-be, emptiness, and showed response to the sex of newborn.

Their Sanhujori practice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Sanhujori environment including provider, place, time in postpartum and reflected on Sanhubuyung. The mothers felt actually mother-to-be and happiness during lactation regardless of feeding pattern.

These mothers had a different maternal image about rearing subjecthood through their child-rearing experience. But all mothers felt need for family support and social support. The universal rearing response were actual feeling of mother-to-be, a strenuous experience, a pride on child-rearing, confusion, reflecting marital relationship, and wondering rivalry among children.

In conclusion, mother of all with children went through self-discovery, self-reflection and made connections with the family as a mother and as a woman simultaneously during the childbearing process. Therefore it is suggested when harmony and balance between a mother and a woman is accomplished, the woman will lead a healthy and high quality of life. Also, this study sought to confirm the sociocultural factors affecting the childbearing proces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women with children. Therefore health care providers must understand deeply the childbearing women with children based on this finding of and try a integrative approach with new ideology of maternity with biocultural perspectives in a clinical setting.